



Suzanne Valadon



'푸른 방' (1923)



'자화상' (1898)

“직진의 행보’ 수잔 발라동 인상적”

그녀는 당대 최고 화가들의 모델이었다.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르누아르의 '부지발의 무도회', 슬병을 앞에 두고 턱을 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로트렉의 '숙취'의 주인공이 바로 그녀다. 드가의 모델이기도 했고, '짐노페디'로 유명한 작곡가 에릭 사티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책을 쓴 이는 예술공간 '집'을 운영하고 있는 큐레이터 문희영 관장이다.

“수잔 발라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직진의 행보'입니다. 모델로 안정적일 법한데 이를 박차고 나왔고, 안정적 결혼 생활에서도 벗어나 열정적 삶을 추구했던 직진의 행보가 결국 예술의 열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면서 그녀가 소외되었던 작가였기에 더 흥미롭고, 보물같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신문에 실렸던 글을 읽은 출판사의 제안으로 책을 준비하기 시작한 문 관장은 자료를 찾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수잔 발라동의 수많은 작품 중 문 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건 표지작으로도 쓰인 '푸른 방'과 '자화상' 시리즈였다.

“그의 작품을 보면서, 또 삶을 알아가면서 느꼈던 건 해방감이었습니다. 기존 여성 누드화의 상징과 같은 '올랭피아' 작품과 비교할 때 '푸른 방'에 표현된 58세의 발라동은 자기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핏피진한 모습에, 책과 담배도 보이구요. 남성들에 의해 박제화된 기존 여성 이미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르누아르가 수잔을 그린 초상화와 그녀가 직접 그린 자화상을 비교해 볼 때 그녀의 작품은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문 관장은 그녀를 “가정의 울타리에 갇힌, 사회에 의해 규정된 여성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존재하는 한 인간”이라 평했다.

이번 책을 쓰며 몇 가지 꿈을 꾸게됐다. 타미라 드 렘피카, 파올라 모더존 베커 등 조명되지 않은 여성 작가들을 더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한국의 윤석남 작가를 페미니즘 관점 보다 한 인간으로, 예술가로 탐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

최근 오승우 화백 연구 논문에 참여했던 문 관장은 지역 미술사, 특히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마음도 먹었다.

조선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문 관장은 신세계갤러리(광주·서울) 큐레이터를 거쳐 지난 2017년 자신의 유년시절 추억이 담긴 한옥을 개조한 '집'을 오픈, 의미 있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순수미술 이외의 장르를 발굴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공간 '집' '추천작가전'이나 중견 작가들의 파격적 도전을 소개하는 '전시실 넘어 실험실'이 대표적이다.

문 관장은 앞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집'을 예술성과 상업성을 갖춘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고 했다. 좋은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의 숨겨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상업적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다.

'집'의 이야기는 첫 책 '빈센트 반 고흐, 세상을 노랑게 물들이다'를 펴냈던 사계절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 책으로 묶여나올 예정이다. 5주년을 맞는 내년, 책과 함께 멋진 기획전을 꾸미는 게 그녀의 바람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 작가전

고영찬·이설·조현택 등 8명

제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시회가 다음달 1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8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창작지원원을 통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작가들의 개성을 폭넓게 수용하고, 초대전 개최 등을 통해 수상작가들을 소개하며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전시기간 중 진행될 최종 심사에는 고영찬·김고은·김영남·문선희·박현아·이설·조현택·최기창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해 대표작품과 포트폴리오를 함께 전시한다. 최종 수상

자는 2차 작품심사, 심사위원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선정된다.

최종 수상작가에게는 대상 1000만원, 신진작가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다. 수상자는 오는 17일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9일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1996년 전국 공모전 형식으로 시작된 '신세계미술제'는 2002년 광주신세계미술제로 변경, 지역작가들을 위한 전시기획안 공모전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는 광주·전남 지역작가 발굴에 더욱 집중, 창작지원 공모전의 형식으로 운영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선희 작 '거기서 뭐하세요'

전통에 스민 현대적 감성 '유유히 담백'

설박·윤준영 초대전, 25일까지 드영미술관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지난 2018년 개관 때부터 청년작가들을 위한 기획전을 꾸준히 열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2021 청년작가 기획전에는 한국화의 전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성 있는 화면을 연출하며 실험적 방법을 탐구하는 한국화가 설박·윤준영 작가를 초청했다. 이번 전시는 무등산 자락 율리움 일대에서 열리는 '2021 무등올림' 협업 전시이기도 하다.

'유유히 담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전통적인 수묵의 정신성과 본질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표현 방식을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전시작은 모두 24점이다.

설박 작가는 전통 산수화를 벗어난 신(新)수묵산수에 주력한다. 은자의 거처이자 탈속의 공간으로 해석된 과거의 산수와 달리 설박의 산수는 다양한 실험이 반영된 다른 방식으로 대상에 접근한다.

윤준영 작가는 공간과 선에 주목한다. 작가가 말하는 공간은 여백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다소 경직되고 냉랭하게 보이는 작품은 사회에서 느끼는 고독감, 상실감,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동반하고 작품은 감춰진 욕망을 표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과 탈출을 제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공간 '집' 문희영 관장 '수잔 발라동' 출간 여성 넘어 '화가'로서의 생애·예술 다룬 첫 책 지역 작가 연구 지속... '집' 이야기도 출간 예정

서커스단의 곡에서, 가난한 세탁부였던 그녀는 모델로 화가의 시선 앞에 앉아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화가가 돼 캔버스 앞에 섰다. 자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자화상과 누드화 등을 통해 자신만의 인장(印狀)을 강렬하게 남긴 프랑스의 화가 수잔 발라동(1865-1938)이다.

마리 클레멘타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지혜로운 로트렉이 지어준 수잔 발라동이라는 이름으로 스물 두살 무렵 화가의 길로 들어선 그녀의 생애와 예술을 다룬 책 '수잔 발라동, 그림 속 모델에서 그림 밖 화가로' (예술문화)는 국내에서 수잔 발라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이다.

여성예술가의 자리가 없었던 시절, 스스로 그 길을 찾아나선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황현산 '전위와 고전', '문지 스펙트럼' 등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권에 선정

목포 출신 고(故) 황현산 교수의 '전위와 고전: 프랑스 상징주의 시 강의'가 '2021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권에 선정됐다. 황 교수는 프랑스 현대 시의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연구에 매진했으며 '밤이 선생이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유려한 문체와 미의식이 담긴 글을 발표하는 등 문학평론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8일 황현산 교수의 '전위와 고전: 프랑스 상징주의 시 강의'를 비롯해 모두 10권을 발표했다.

이밖에 '아름다운 책' 10권에 선정된 도서

는 '공예:재료와 질감', '기록으로 돌아보기', '문지 스펙트럼', '블루노트 컬러를 위한 지침', '신묘한 우리 맛', '아웃 오브 (콘)텍스트', '자소상/트랙터', '한글생각', '데이터 컴포지션' (Data Composition) 등이다.

한편 이 도서들은 내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과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전시되며 독일 북아트재단과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함께 운영하는 국제 책 디자인 공모 행사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도 출품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5일 광주오페라단 공연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월요 콘서트 올해 마지막 무대가 열린다.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광주오페라단의 '낭만의 서정시-가곡과 마주하다' 무대.

아나운서 박광신 씨가 사회와 해설을 맡는 이번 공연은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목소리로 선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작곡가 토스티 '매혹', 벨리니 '어두운 구름 뒤에', 슈만 '현정', 리스트 '졸겹게 그리고 슬프게' 등 예술가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날 공연은 바리톤 김지영, 소프라노 이지현·윤한나, 테너 김장규, 파야노 이지은 씨가 출연한다. 선착순 50명 무료관람, 문화N티켓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설박 작 'a Bigger Scenery'



윤준영 작 'Space'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